

드메르 웨딩홀, 도로 점용 이어 건물도 불법 증축

본관 건물과 연결 통로...원상복구 시정명령 무시하고 '배짱 영업' 도로 점용료 광산구 특혜 확인...연이은 불법행위에 지역사회 공분

광주 수완지구에서 성업 중인 드메르 웨딩홀이 도로부지를 버스주차장으로 점용해 사용하다가 적발(광주일보 1월 15일자 6면)된 데 이어 이번에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임방울대로)에서 영업 중인 드메르 웨딩홀은 본관 건물 뒷면에 415㎡(125평) 규모의 건물을 허가 없이 증축·사용하다 최근 광산구에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영구 건조물처럼 'H' 형태로 기둥까지 세워 불법 증축한 것으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본관 건물 벽면을 뚫은 뒤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로 확인 돼 지난달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드메르 웨딩홀은 현재까지 광산구의 원상 복구 및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건축물을 유지한 채 배짱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드메르 웨딩홀 관계자는 "법 규정에 맞도록 시정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후에는 지역민을 위한 기부 등 공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본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다.

드메르 웨딩홀은 또 2013년부터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뒤 당초 목적과 달리 10여년 동안 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최근 광산구에 적발되기도 했다.

드메르 웨딩홀은 건축허가 당시 해당 1740㎡ 도

로 부지에 진·출입로 및 가로수 16주 이식을 비롯한 장애인 편의시설 7개 항목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해 허가 받았으나, 이 같은 의무사항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버스 전용 주차장 용도로만 10년째 사용하고 있다.

드메르 웨딩홀은 특히 광산구에 실거래가 기준 50억원을 웃도는 해당 도로부지 점용료로 연 평균 670여 만원을 납부하는 데 그친 반면, 정작 자신들이 직접 조성한 주차장은 유료화하고 광주시민 등 이용객들로부터 매년 역대 규모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드메르 웨딩홀 도로부지 점용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광산구는 도로점용 허가 조건 위반에 따라 점용 허가 취소 대상인데도 허가신청 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임의로 허가를 연장했으며, 점용료도 인근 필지보다 4배 이상 낮은 소액만을 부과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큰 글씨로 받아요"

광산구 '읽기 쉬운 큰 글씨 고지서' 확대...등록면허세 등

광주 광산구는 "생활밀착형 정책의 하나로 도입한 '읽기 쉬운 큰 글씨 고지서'를 확대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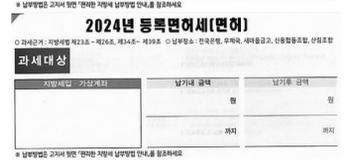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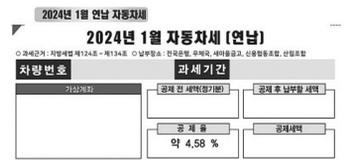
광산구는 글자 크기가 너무 작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시민이 필요한 정보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존 고지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읽기 쉬운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했다.

고령 납세자는 물론 시력이 좋지 않은 시민도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확대했으며,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했다.

광산구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고지서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광산구는 '읽기 쉬운 큰 글씨'를 적용해 17만 건의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읽기 쉬운 큰 글씨 고지서는 시민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정



광산구가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도입한 '읽기 쉬운 큰 글씨'를 적용한 2024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위)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행정 혁신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은 100세 시대 설계

사회적처방 연계 건강관리소 개소

광주 광산구가 시민이 아프고 외로움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100세 시대 설계에 나선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19일부터 지역 안에서 건강한 광산 시민의 삶을 뒷받침할 '사회적 처방 연계 건강관리소(이하 건강관리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수완문화체육센터 3층에 마련된 건강관리소는 민선 8기 광산구의 핵심 복지 정책인 '100세 시대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실행하는 거점이다.

지난해 9월 (재)광주테크노파크 주관 '2023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공모 선정에 따라 광산구와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호남대학교,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협업해 구축·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고독사 및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의 존엄한 삶과 '성공적인 나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광산구는 앞으로 '100세 시대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통해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은 100세 시대의 새로운 설계를 그릴 예정이다.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의료·돌봄 연계 기반 확립부터 보편적 돌봄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광주+광산형 통합돌봄' 확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선도해 온 광산구 복지 역량을 한데 모으고 한 차원 높은 복지 체계를 구현하겠다는 게 광산구의 의지다.

그 첫 단추는 건강관리소를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회적처방지원 네트워크' 사업이다. 사회적 처방은 의료적처방 외 상담,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복합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규(왼쪽에서 두번째) 광산구청장과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호남대학교,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관계자들이 사회적처방 연계 건강관리소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해 사회적 원인을 해결하고, 건강·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건강관리소 운영을 전담하며 자가건강관리 서비스, 유소년부터 고령층까지 나이별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건강관리소는 13종의 최첨단 AI(인공지능) 기반 실증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신체기초, 근골격, 뇌인지 3개 테마별로 건강측정이 가능하다.

사회적처방의 실행과 실천을 돕는 '건강활동가'도 운영한다. 호남대학교는 물리치료학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등 7개 학과의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활동가를 양성하는 전문 인력 교육을 추진한다.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건강활동가 활동 및 건강관리소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광

산구는 '콘텐츠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관리소의 원활한 운영과 통합 돌봄사업과 연계한 사회적 처방 사업 등을 추진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사회적처방 연계 건강관리소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으로, 시민이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100세 시대의 설계를 그리고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산구 '동 주민과의 대화' 21곳 순회 소통의 시간

광주 광산구는 "2024년 새해를 맞아 구정 핵심 정책 등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 제안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동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국·소장들은 지난 16일 어룡동을 시작으로 21개 동을 순회하며 각계각층 주민, 기관, 사회단체장 등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병규 정장은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올해 전 반적인 구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국·소장은 구체적인 핵심 정책을 공유한다.

또 경청·소통 행정의 시민 체감도 등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보고한다.

2023년 동 주민과의 대화에선 총 403건의 제안·건의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총 261건(64.8%)이 처리·완료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 동 주민과의 대화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 시민과 가장 밀접한 등, 마을이 주도하는 광산형 자치분권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삶의 현장, 일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광산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교통공사, 재난안전 상시훈련 우수기관 행안부장관 표창

광주교통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재난안전 상시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충무훈련에서 역사 내 폭발물 테러 발생 시 승객대피 훈련, 안전한국훈련에서 지진으로 인한 전동차 탈선 및 화재 상황 대피 훈련 등을 실시했으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

업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단말기)을 적극 활용한 안전관리로 각종 대형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익문 사장은 "공사는 어떠한 이례상황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을 통해 안전시스템을 다지고 있다"며 "최고의 안전도시 철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